

# 蕁麻疹의 原因 및 症狀에 對한 韓醫學의 文獻的 考察

高祐新\* · 黃忠淵\* · 林圭庠\*

## I. 緒 論

蕁麻疹 즉 두드러기(Urticaria)<sup>1)</sup>는 흔한 疾病中에 하나로서 많은 사람들이 평생에 한번 정도는 겪게되는 症狀인데, 一種의 흔히 볼 수 있는 알레르기性 皮膚病<sup>2)</sup>으로서 皮肉에 蕁麻疹의 素因物質이 潛在하여 發生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즉 蕁麻疹이 걸리기 쉬운 體質에다, 內外因으로서 어떤 자극에 의한 알레르기性 反應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皮膚가 갑자기 가려우며, 편평하게 약간씩 도드라져 올라오는 病證을 말한다.<sup>3,4)</sup>

個體가 自我에 대한 免疫學的 反應을 喪失하면 自我를 이루는 모든 成分에 대하여 免疫 反應이 招來될 可能性이 있으며, 이러한 疾患을 總體的으로 自家免疫性 疾患이라고 부른다.<sup>5,6)</sup> 이와는 약간 다르지만 外部的인 刺戟에 대하여 너무 심히 反應하여 招來되는 自我의 免疫學的 組織損傷에 의한 疾患을 모두 알레르기性 疾患(예; 천식, 담마진)이라고 말하고 있다.<sup>7,8,9,10)</sup>

飲食物의 不節制나 外的인 邪氣(즉 대기오염, 細菌等) 등으로 두드러기 疾患이 점점 증가추세에 있는 요즘 韓醫學에 있어서 이러한 두드러기와 관계있는 病名은 여러가지가 있는바, 蕁麻疹의 症狀과 관계깊은 疾患들의 原因, 症狀을 研究, 考察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 II. 資料 및 調查方法

### 1) 資 料

〈黃帝內經〉을 비롯하여 歷代 重要醫書로부터 現代에 이르기까지 總 27種을 研究資料로 하였다.

### 2) 調查方法

上記 資料를 分析하여 概念을 把握하고 原因 및 症狀을 分類하였다.

## III. 本 論

### 1. 外科 皮膚科의 辨證論治<sup>2)</sup> 原因)

本病의 대부분은 先天的인 體質에 의한다든가, 또는 生鮮이나 새우와 같은 비린내가 나는 것이나, 風을 動하게 하는 飲食을 먹었을 경우라든가, 또는 飲食의 節度를 失하여 胃나 腸에 實熱이 생기는 경우, 平素에 體虛하고 衛表가 굳어 있지 않는 경우, 또는 風熱이나 風寒에 邪를 感受하여 皮毛나-節膜間에 停滯하므로 인하여 發病한다. 그리고 失意에 젖어 肝鬱不舒가 되기 때문에 氣機가 停滯하여 不暢하게 되고 또한 鬱結하여 火로 化하여 陰血을 灼傷하고 風邪를 感受하여 誘發한다.

\* 圓光大 韓醫科大學 外官科學教室

症狀)

· 風熱型

發病이 갑작스럽다. 蕁麻疹의 色은 赤色이며 灼熱感이 있고 激甚한 搔痒感이 있다. 發熱, 惡寒이나 腫痛等의 症狀을 수반한다. 또는 嘔吐나 腹痛을 수반한다. 熱이 있으면 皮疹이 重해지고, 舌苔는 薄白 또는 薄黃하며 脈은 浮數하다.

· 風寒型

皮疹의 色은 淡白色이고 風이나 冷을 만나면 더욱 심해진다. 身體는 寒하며 冷한 것을 싫어한다. 口渴은 없고 舌體는 胖大하며 舌質은 淡하고 舌苔는 白하다. 脈은 浮緊하다.

· 陰血不足型

皮疹은 반복하여 發作을 일으키며 장기간 遷延되어 治癒되지 않는다. 그의 대부분은 午後나 夜間에 發作을 일으킨다. 초조 불안하고 성을 잘 내며 안정감이 없으며 心悸, 口乾等의 症狀을 수반한다. 舌質은 紅하고 津液이 적거나 또는 舌質이 淡하며 脈은 沈細하다.

## 2. 最新 韓方臨床學<sup>3)</sup>

原因)

· 肌肉內에 濕氣邪가 潛在하여 있는데다가, 風熱과 風寒邪에 便乘感染되어 營衛가 調和를 잃어 發生한다.

· 胃腸에 濕熱邪가 潛在하여 있는데다가, 다시 風熱邪의 感染을 받아, 그로 因해 發生한 濕熱風邪가 內外로 疏泄과 透達을 못한 탓으로, 皮毛腠理에서 發生을 한다.

· 過敏性體質로서 鮮魚類, 蟹(蟹), 藥材等의 刺戟誘導로 濕熱이 생겨 이것이 肌肉으로 浸透하여 發生을 한다.

症狀)

發疹의 形態는 圓形, 橢圓形 또는 不規則한

大小不同의 形態이지만, 疹과 疹의 境界는 鮮明하다. 疹은 浮腫, 扁平隆起한 紅色 또는 乳白色으로 發疹하게 된다. 發疹은 몹시 가려운 것이 特徵이며, 이 發疹은 局部로부터 全身으로 擴大 또는 처음부터 全身全面으로 일어나는 일도 많다. 이 「두드러기」는 급작스럽게 일어나 充血로 붉게 되면서 몹시 가렵다가도 없어지는 것이 또한 特徵인 것이다.

## 3. 재편집 동의학 사전<sup>4)</sup>

原因)

피부에 습과 풍열사가 엉겨 생기거나 온습이 있는데다 풍랭이 침습하여 생긴다. 이밖에 체질적 결함과 음식, 기생충, 7정등 여러가지 요인이 관계된다.

症狀)

피부가 갑자기 가려우며 편평하게 약간씩 도드라져 올라오는 병증을 말하며 두드러기의 모양과 크기, 색깔은 각이할 수 있으나 대개 갑자기 생겼다가 갑자기 없어진다. 일과성인 것, 수일 또는 2주안에 없어지는 급성인 것, 반복 재발하여 오래 끄는 만성인 것등 경과도 다양하다.

## 4. 簡明中醫辭典<sup>11)</sup>

原因)

內蘊濕熱, 復感風寒, 鬱于皮膚而發, 或由于對某些物質過敏所致

症狀)

皮膚出現大小不等的風團, 小如麻粒, 大如豆瓣; 甚則成塊成片, 劇痒, 時隱時現

## 5. 中醫臨證備要<sup>12)</sup>

原因)

多因汗出惡風, 風熱逆于肌表, 亦與血熱有關

症狀)

皮膚出現疙瘩，初起如蠶豆辨，漸漸成片成塊，色白不紅，如被臭蟲所咬，故俗稱“風陳塊”，此證愈愈痒愈多，滿布全身，發內，耳內，手足心均奇痒難忍，時隱時現，反復發作

#### 6. 中醫名詞術語詞典<sup>13)</sup>

原因)

屬于風熱的，丘疹色鮮紅，劇痒，灼熱，舌紅，脈浮數

屬于風寒的，丘疹色白，劇痒，惡風，舌苔薄白，脈浮弦

屬于風濕的，則疹色微紅，兼見胸悶，四肢痠重，舌苔厚膩

若反復發作，經年不愈，多屬氣血虛

症狀)

皮膚出現大小不一的風團，小如麻疹，大如豆辨，成塊成片。

#### 7. 丹溪心法附餘<sup>14)</sup>

原因 吳 症狀)

多屬脾，隱隱然在皮膚之間，故言癢疹也，發則多痒，或不仁者，是兼風，兼溫之殊，色紅者，兼火化也。

#### 8. 中醫學問答<sup>15)</sup>

原因)

由于稟賦不耐，過食葷腥和動風燥火之食物，腸胃失和，濕熱失和，濕熱內生，鬱而外發，或體質虛弱，或七情內傷，沖任不調，氣血虛弱，風邪乘襲，客于皮膚之間而發為癢疹。

症狀)

本病發病突然，皮膚出現云片样的風團，或形似麻豆，大小不一，皮損為紅色或與皮色一致，迅速發生，消退亦快，有的一天發作多次，搔痒劇烈。

少數患者可有發熱，濕熱蘊于腸胃間，可出現腹痛，腹瀉，熱盛者可有便秘，風熱鬱阻氣道，可見呼吸困難。急性者愈合較快，慢性者可反復發作，數月或數年難痊。

#### 9. 病源辭典<sup>16)</sup>

原因)

由脾經蓄熱，更兼風濕所致

症狀)

隱隱發點粒，似腫非腫，多發痒或不仁，或初起如蚊蚤所咬，煩癢異常，搔之則隨手而起

#### 10. 漢醫學臨床病理<sup>17)</sup>

原因)

·急性 蕁麻疹

多因體質關係，又食魚，蝦，蟹，蛋等葷腥不新鮮食物；或因飲酒；或因內有食滯，邪熱，復感風寒，風熱之邪；或因平素體健汗出當風，風邪鬱于皮膚腠理之間而誘發。也有因為服藥，注射藥物引起過敏而誘發

·慢性 蕁麻疹

多因情志不遂，肝鬱不舒，鬱久化熱，傷及陰液，或因有慢性病（如腸寄生蟲，腎炎，肝炎，月經不調等）平素體弱，陰血不足；或因皮疹反復發作，以致內不得疏泄，外不得透達，鬱于皮膚腠理之間，邪正交爭而發病

症狀)

首先局部發生搔痒，抓後皮膚潮紅，迅即發生扁平隆起，稱為風團，大小不等，圓形或不規則形，顏色鮮紅或中央呈白色，邊緣鮮紅色。有明顯搔痒及輕度灼熱感。一般1~2小時後逐漸消退，消退後不留任何痕迹。每晝夜可發作數次，極個別的風團表面出現水疱。一般皮疹均泛發全身，嚴重者顏面部明顯浮腫。可伴有發燒，惡寒，胸悶氣短，腹痛腹瀉，惡心，嘔吐，頭暈等全身症狀

## 11. 中醫外科學<sup>18)</sup>

原因)

· 肌膚有濕，復感風熱或風寒之邪，致使營衛不和而起

· 腸胃濕熱，復感風邪，內不得疏泄，外不得透達，鬱于皮毛腠理之間而發

· 過敏所致，如因腸內有寄生蟲（蛔蟲，鉤蟲，薑片蟲等）或吃魚鮮蝦蟹，藥物等，導致濕熱內生，逗留肌膚，亦可發生本病

· 衝任不調，營血不足，膚失所養，衝任之脈系于肝腎，營血不足，肝腎失于柔養，生風生燥，風燥阻于肌膚，膚失所養而成本病

· 上述這些因素中的冷，熱，風等刺激，或食魚鮮蝦蟹，使用某些藥物，腸寄生蟲，消化道功能障礙等過敏，均能導致皮膚的組織細胞釋放組織胺，使小血管擴張，管壁的滲透性增加，形成局限性水腫，皮膚即表現為風團樣損害。

症狀)

發病突然，在身體任何部位，發生局限性的風團，小如芝麻，大如豆瓣，或呈鮮紅色，或呈淡黃白色，風團數日隨搔抓增大，增多，可融合成環狀，地圖狀等各種形狀，如發在眼瞼，口唇等組織弛緩部位，浮腫特別明顯，此種情況亦稱血管神經性水腫。皮損數小時後迅速消退，不留痕迹，後又不斷成批發生，時隱時現，至一周左右停止發生；但部分病員可呈慢性反覆發作，長達數月或數年。自覺劇癢或灼熱。

## 12. 東醫寶鑑<sup>19)</sup>

〈丹心〉

癩疹多屬脾隱隱然在皮膚之間故言癩疹也發則多痒或不仁者是也兼風熱濕之殊色紅者兼火化也。

〈入門〉

疹者紅腫隱隱皮膚表分但作搔痒全無腫痛名曰癩疹當春而發最重即溫毒也。

〈正傳〉

疹有赤白赤疹屬陽遇清涼而消白疹屬陰遇煖而滅  
〈直指〉

遍身白疹搔痒不止天陰日冷則重天清日暖則輕此由寒邪狀於肌膚凝滯而成

## 13. 中醫臨床手冊<sup>20)</sup>

原因)

肌中有濕邪風熱蘊結，食物誘發

症狀)

全身；有寒熱

局部；皮膚發生豆大或銅元大的白色（屬風冷，氣分）或大片紅色（屬風熱，血分）扁平皮疹，灼熱搔痒，發生快，消失亦快

## 14. 中醫外科學<sup>21)</sup>

原因)

總由稟性不耐，人體對某些物質過敏所致。可因食物，藥物，生物制品，病灶感染，腸寄生蟲病而發作，或因精神因素，外界寒冷刺激等因素透發  
症狀)

在身體的任何部位，可突然發生局限性風團，小如芝麻，大似蠶豆，核桃，甚至如手掌大小。鮮紅色或呈淡黃白色。損害數目常隨搔抓的刺激而擴大，增多，有的融合成環狀，地圖狀等多種形態。風團一般迅速消退。不留痕迹，以後又不斷成批發生，時隱時現。如單純在眼瞼，口唇，陰部等組織疏松處發生浮腫，邊緣不清，而無其他皮疹者，則是血管性水腫，多存在2~3天之後，方能消退，亦有持續更長時間的。

自覺灼熱，搔痒劇烈，部分患者可有怕冷，發熱等症狀；如侵犯消化道粘膜者，可伴有惡心，嘔吐，腹痛，腹瀉等症狀；發生在咽喉部者，可引起喉頭水腫和呼吸困難，有明顯氣門室息感，甚至發生暈厥。

### 15) 中醫實習手冊<sup>22)</sup>

原因)

與稟賦不耐，風寒客于皮膚有關。食入魚，蝦，吸入花粉，或腸內有寄生蟲等，皆可引起本病。

症狀)

可有乏力，納差等前驅症狀。大多數患者一開始就突然出現大小不一，色紅或白的風團，在數小時內可迅速消失，不留任何痕跡，不久又可出現類似現象。既可發生于體表任何部位，也可在口腔，咽喉，胃腸道等處粘膜出現。自覺症狀是搔癢，灼熱，或惡心，嘔吐，或咽中有異物感，或呼吸困難，或腹痛，腹瀉等等

### 16) 聖濟總錄<sup>23)</sup>

原因)

論曰風搔癢疹，其狀有二，皆緣肌中有熱，若濕之氣折之，熱結不散則成白疹。若因風邪所折風熱相搏則成赤疹。

症狀)

赤疹得熱則劇。得冷則減。蓋熱氣鬱結于內故惡熱宜冷。白疹得陰雨則甚。得晴暄則消。蓋熱氣散釋于外。故惡冷宜熱。冷熱之證虽導。其為癢疹則一。蓋身體風搔而痒。搔之隱隱而起是也。

### 17) 常見病中醫臨床手冊<sup>24)</sup>

原因)

發病的主要原因是風熱或風寒搏于皮膚，亦有因吃了某種食物，藥物及腸內有寄生蟲或其它致敏因素引起。

症狀)

· 皮疹為局限性大小不等的扁平隆起，顏色可為鮮紅，淡紅或白色。隨搔癢而驟然發生，又常迅速消退，不留痕跡。急性者皮疹不斷成批發出，至一周左右停止發生。慢性者反復發作，長達數周，數月或數年。

· 自覺劇烈搔癢，灼熱，吹風受涼或遇熱時更加嚴重。

· 發作期如有腹痛，腹瀉，便秘，胸悶氣急等全身症狀者，表示內臟有同樣病變存在

· 皮膚劃痕呈陽性反應。嗜酸性白血球常增高

### 18. 漢方臨床學(辨證論治)<sup>25)</sup>

原因)

風，濕，熱이 肌膚에 침입하거나 혹은 腸胃에 열이 울체되고 다시 풍사가 침입을 받아 皮毛膜理에 울체하여 발생한다. 또 방해(螻蟹; 개나 방개)약물 기생충등의 여러가지 원인으로 발생된것 중에 하나가 과민성 피부질환이다.

症狀)

은진은 皮膚의 사이에 은은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은진이라 한다. 病의 原因은 脾에 속하고 있다. 皮膚의 表面에 가려움이 있으면서 진괴(疹塊; 덩어리)만 나타나고 통증은 없으며, 계절적으로는 봄에 흔히 발생하여, 옛말에 이르기를 溫毒이라고 하였다.

### 19. 黃帝內經素問譯解(四時刺逆從論)<sup>26)</sup>

原因)

少陰有餘皮痺隱軫

### 20. 醫宗金鑑(外科心法要訣·痞瘤)<sup>27)</sup>

原因 및 症狀)

痞瘤汗出中邪風，狀類豆瓣扁瘤形

[注] 此證俗名鬼飯疙瘩，由汗出受風，或露臥乘涼，風邪多中表虛之人，初起皮膚作痒，次發扁疙瘩，形如豆瓣，推集成片。

### 20. 三因極一病證方論(癩疹證治)<sup>28)</sup>

原因 및 症狀)

世醫論癩疹 無不謂是皮膚間風。然既分冷熱。冷熱即寒暑之證。又有因浴出溼風冷而得之者。豈非濕也。則知四氣備矣。經云。諸痒痛瘡皆屬於心。心實熱則痛。虛寒則痒。又陽明主肌肉。屬胃與大腸。亦有冷熱分痛痒。不可不審。世人呼白者爲婆膜。赤者爲血風。名義混雜。當以理曉。內側察其臟腑虛實。外則分其寒暑風濕。隨證調之。無不愈。

### 21. 備急千急要方(隱疹 第五) <sup>20)</sup>

原因 및 症狀)

論曰。素問云。風邪客於肌中則肌虛。真氣發散。又被寒搏。皮膚外發溼理開毫毛。淫氣妄行之則爲癢也。所以有風疹搔痒。皆由於此。又有赤疹者。忽起如蚊蚋啄。煩癢劇者。重沓壘起。搔之逐手起。又有白疹者亦如此。赤疹熱時即發。冷即止。白疹天陰冷即發。

### 22. 新刊濟世全書 <sup>30)</sup>

原因 및 症狀)

癩疹多屬脾陰隱然在皮膚之間故言癩疹也發則多痒或不仁者是兼風兼濕之殊色紅者兼火化也熱微者赤斑出熱甚者黑斑出赤斑五死一生黑斑十死一生。

### 23. 巢氏諸病源候論 <sup>31)</sup>

(風搔隱疹生瘡候)

人皮膚虛風邪所折 則起隱疹 寒多則色赤 風多則色白 甚者痒痛搔之則成瘡。

(風搔身體隱疹候)

邪氣客於皮膚 復逢風寒相折 則起風搔隱疹 若赤疹者 由涼濕折於肌中之極熱 熱結成赤疹也 得天熱則劇取冷則滅也 白疹者 由風氣折於肌中熱熱與風相搏 所爲白疹 得天陰兩 冷則劇出 風中亦劇 得晴暖則滅 著衣身暖亦瘥也 脈浮而紅 浮即爲風 洪則爲氣強 風氣相搏 隱疹身體爲痒 養生方云 汗出不可露臥及浴 使人身振寒熱風疹。

(風痞癩候)

夫人陽氣外虛則多汗 汗出當風 風氣搏於肌肉 與熱氣并則生痞癩 狀如麻豆 甚者漸大 搔之成瘡。

### 24. 外臺秘要 <sup>32)</sup>

(癩疹風疹一十三首)

黃帝素問曰風邪客於肌中肌虛直氣致散又被寒搏 皮膚外發腠理淫氣行之則痒也所以癩疹搔疾皆由於此有赤疹忽起如蚊蚋啄痒重沓壘起搔之逐手起也。

(風搔身體癩疹方五指)

病源邪氣客於皮膚復逢風寒相折則起風搔癩疹若赤疹者由涼濕搏於肌中之熱熱結成赤疹也得天熱則劇取冷則滅也白疹也得天陰兩冷則劇出風中亦劇得晴暖則滅厚衣身暖亦瘥也脈浮而大浮風虛大爲氣強風氣相搏即成癩疹身體爲癢養生方云汗出不露臥及浴使人身振寒熱風疹也。

(風搔癩疹生瘡方六首)

病源人皮膚虛爲風邪所折則起癩疹寒多則色赤風多則色白甚者癢痛搔之成瘡。

### 25. 洪家定診秘傳 <sup>33)</sup>

原因 및 症狀)

癩疹과 濕疹에 手足掌이 단단히 굳어 발을 벗고 다니다가 굳은것같이됨은 大人 小兒를 勿論 하고 食毒이나 蟲毒으로 胃나 小腸의 結核이나 痰이 되어 消化가 不良하고 分泌가 잘 되지 못함이나 飲食物에 消化分泌는 大小便으로 되고 眞液은 피로 되나니 消化分泌가 잘 되고 血이 精精하면 此症等病이 無하나 消化分泌가 잘못됨은 胃에 故障이오 內腸에 屬한 病이오 此等病이 全然없는 人으로서 冒暑出汗하다가 갑자기 소낙비를 맞아 寒熱이 相搏되어 此病이 發生하거나 濕地에서 자다가 發하거나 酷甚한 寒熱을 받아 猝發하나 內傷을 兼하여 魚肉毒으로 發함.

26. 漢方臨床四十年<sup>34)</sup>

原因)

內因性은 生鮮, 貝類, 果實等의 攝取로 胃腸 카탈과 併用된다. 或은 下痢, 便秘, 寄生蟲때 문에 發하는것, 妊娠, 月經不順, 子宮內膜炎, 白血病, 黃疸, 慢性腎臟炎, 腫瘍, 神經衰弱, 히스테리등에 併發하는 수도 있다.

症狀)

一種特有的 局限된 浮腫이 돌연히 發生하여 甚한 搔痒을 가져오며 또 突然消散하여 조금도 痕跡을 남기지 않는것이 特徵이다. 浮腫은 약간 硬하며 皮膚面보다 若干 隆起되며 境界가 分明하다. 그 色은 紅 或은 白으로 곧 全身으로 蔓延하며 그 形에 따라 地圖狀, 蛇行狀이 있다. 또한 喘息樣發作을 나타내는 것이 있다. 大部分 急性으로써 經過되며, 發疹은 晝夜 몇번이나 發作狀으로 오고, 特히 夜間褥溫에 消退되며 때로는 數個月두고 反復發作하는 것과 數年內에 걸쳐 發疹이 끝이지 않는 慢性 蕁麻疹이 있다.

27. 漢方外科<sup>35)</sup>

原因)

· 內因性: 消化器障礙, 飲食物中毒, 寄生蟲, 婦人生殖器障礙, 神經衰弱, 內分泌홀몬의 障礙 등에서 起因된다.

· 外因性: 모든 昆蟲類에 물렸을때, 藥劑, 꽃가루, 먼지, 惡臭等에서도 起因된다.

· 原因을 잘 알지 못하는 것도 있다.

症狀)

· 急性蕁麻疹: 腐敗된 飲食物, 變質된 藥劑, 毒物等이 體內에 들어가므로 말미암아 皮膚가 가렵고 發赤되어 皮膚表面으로 두드러져 있고, 境界가 뚜렷하며 손톱크기 혹은 손바닥크기 이상으로 전신에 번져진다.

· 慢性蕁麻疹: 이것은 寒冷蕁麻疹으로서 冷水 冷風에 依하여 發生되며, 白色으로 나타나고 大端히 緩慢하게 作用한다. 或은 溫暖에 依하여 發生하는 것도 있다.

· 固定蕁麻疹: 모기, 이, 딱충 或은 毒蟲等에 물리고 찔려서 되기도 한다. 兩側下腿部에 散在하여 있거나 때로는 前膊等に 大豆大에 完 고한 丘疹이 나타나고 角質을 增殖하고 疣狀을 나타내며, 極甚한 搔痒이 있다.

· 色素性蕁麻疹: 先天的 或은 後天的인 것이 있다. 先天的인 것은 黃褐色의 蠶豆大의 色素斑이 있으면서 結節이 多數 發生한다. 搔破하면 蕁麻疹樣과 같이 腫脹한다. 이 證은 數年이 지나면 自然히 治癒된다. 後天的인 것은 色素가 沈着되고 境界가 뚜렷하다.

IV. 考察 및 總括

本論에서 提是된 蕁麻疹에 關한 重要한 原因, 症狀을 要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原因에 對하여 살펴보면 內經<sup>26)</sup>의 <四時刺逆從論>에서는 少陰有餘하면 隱軫이 된다고 하였으며 巢<sup>31)</sup>는 人皮膚虛한데 風邪所折하면 隱軫이 일어난다고 하고 邪氣가 皮膚에 머물러서 있을때 風寒相折하면 隱軫이 發生한다 하였다. 또 人陽氣가 外虛하면 多汗하여 汗出當風하면 風寒搏於肌肉時 熱氣가 서로 并하여 痞癰가 생긴다 하였다. 王<sup>32)</sup>은 風邪客於肌中하면 肌虛하여 眞氣發散된 상태에 被寒搏되면 癰軫이 발생하여 癢하게 된다 하였으며, 孫<sup>29)</sup>도 王<sup>32)</sup>과 上同한 原因을 말하였고, 朱<sup>14)</sup>는 原因이 “多屬脾, 隱隱然在皮膚之間, 故言癰軫也” 한다 하였으며 許<sup>19)</sup>와 巢<sup>31)</sup>도 朱<sup>14)</sup>와 原因이 同一함을 알 수 있었고,

柳<sup>2)</sup>는 原因이 先天的인 體質에 의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楊<sup>15)</sup>, 재편집 동의학 사전<sup>4)</sup>, 漢醫學臨床病理<sup>17)</sup>, 顧<sup>21)</sup>, 張<sup>22)</sup> 등에서도 上同한 原因을 말하고 있다. 또 生鮮이나 새우 같은 비린(腥) 음식을 먹어서 일어난다고도 하였는데, 이는 楊<sup>15)</sup>, 재편집 동의학 사전<sup>4)</sup>, 漢醫學臨床病理<sup>17)</sup>, 中醫外科學<sup>18)</sup>, 襄<sup>3)</sup>, 張<sup>22)</sup>, 蔡<sup>25)</sup>도 上同한 原因을 말하였다. 또 情志狀態의 停滯가 原因이 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楊<sup>15)</sup>, 재편집 東醫學 辭典<sup>4)</sup>, 漢醫學臨床病理<sup>17)</sup>, 顧<sup>21)</sup>, 朴<sup>34)</sup>, 蔡<sup>35)</sup>에서도 上同한 原因을 들 수 있으며, 또 飲食物의 不節制로 胃나 腸에 實熱이 생겨서 發生된다고도 하였는데, 이는 簡明中醫辭典<sup>11)</sup>, 楊<sup>15)</sup>, 朴<sup>16)</sup>, 中醫外科學<sup>18)</sup>, 襄<sup>3)</sup>, 蔡<sup>25)</sup> 등에서 上同한 原因을 說明하고, 中醫名詞術語詞典<sup>13)</sup>에서는 原因을 風寒, 風熱, 風濕, 氣血虛로 분류하여, 氣血虛에 屬하는 것은 反復發作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慢性 蕁麻疹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氣血虛에 대한 說明을 柳<sup>2)</sup>, 재편집 동의학 사전<sup>4)</sup>, 漢醫學臨床病理<sup>17)</sup> 등에서는 說明하고 있으며, 簡明中醫辭典<sup>11)</sup>에서는 어떤 특정한 物體에 對한 人體의 過敏所致로 나타난다고 說明하고 있는데 上同한 原因을 中醫外科學<sup>18)</sup>, 顧<sup>21)</sup>, 漢醫學臨床病理<sup>17)</sup>, 常見病中醫臨床手冊<sup>24)</sup>, 蔡<sup>35)</sup> 등에서도 說明하고 있다. 또한 腸內寄生蟲이 原因이 된다고 說明하고 있는 文獻은 재편집 동의학 사전<sup>4)</sup>, 中醫外科學<sup>18)</sup>, 顧<sup>21)</sup>, 張<sup>22)</sup>, 常見病中醫臨床手冊<sup>24)</sup>, 朴<sup>34)</sup>, 蔡<sup>35)</sup> 등에서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衝任不調時 風邪乘襲하여 皮膚之間에 머물러서 癩疹을 發生한다고 說明한 文獻은 楊<sup>15)</sup>, 朴<sup>16)</sup>, 中醫外科學<sup>18)</sup>, 朴<sup>34)</sup>, 蔡<sup>35)</sup> 에서 보여주고 있으며, 顧에서는 기타 物理因素(日光, 冷, 熱刺激)로 인하여도 發生한다고 보았으며,

漢醫學臨床病理<sup>17)</sup>, 蔡<sup>35)</sup>에서는 注射藥物 또는 服藥으로 發生된다고 하며, 柳<sup>2)</sup>, 蔡<sup>35)</sup> 등에서는 原因을 잘 모르는것도 있다고 說明하였다.

柳<sup>2)</sup>, 中醫名詞術語辭典<sup>13)</sup>에서는 原因에 따라 丘疹의 色을 說明하고 있는데 風熱일때는 鮮紅色이고, 風寒일때는 色이 희고, 風濕일때는 淡紅色이다라고 하였다. 趙<sup>23)</sup>에서는 肌中有熱한데 만약 涼濕之氣折之하여 熱結不散하면 白疹이 된다고 하였고, 또 風邪所折하여 風熱相搏하면 赤疹이 된다고 하였는데, 王<sup>32)</sup>에서도 이와같은 說明을 보여주고 있다.

症狀에 對하여 살펴보면 簡明中醫辭典<sup>11)</sup>에서는 劇痒, 時隱時現한다고 하였으며, 柳<sup>2)</sup>에서는 灼熱感이 있고 激甚한 搔痒感이 있다고 하였고, 楊<sup>15)</sup>에서는 搔痒劇烈한다고 하였으며, 朴<sup>16)</sup>에서는 多發癢 或 不仁이라 하였고, 漢醫學臨床病理<sup>17)</sup>에서는 현저한 搔痒及輕度的 灼熱感이 있다 하고 수시간내 消失되고 흔적이 남지 않는다 하였으며, 中醫外科學<sup>18)</sup>에서는 發病突然하다 하였고, 中醫臨床手冊에서는 灼熱搔痒, 發生快, 消失亦快한다고 하였고, 顧<sup>21)</sup>에서는 突然發生하고 一般迅速消退, 不留痕迹하고 自覺灼熱 搔痒劇熱한다 하였고, 襄<sup>3)</sup>에서는 發疹은 몹시 가려운것이 特徵이고 급작스럽게 일어난다고 하였으며, 張<sup>22)</sup>, 常見病中醫臨床手冊<sup>24)</sup>에서는 顧<sup>21)</sup>에서와 同一하게 나와 있으며, 趙<sup>23)</sup>에서는 身體風搔而痒搔之隱隱而起한다 하였고, 蔡<sup>25)</sup>에서는 皮膚의 表面에 가려움이 있으면서 진괴만 나타나고 통증은 없다고 하였다. 또한 吳<sup>27)</sup>에서는 初起 皮膚作痒한다고 하였으며, 王<sup>32)</sup>에서는 忽起如蚊蚋啄煩痒重沓壘起搔之逐手起也라 하였으며, 朴<sup>34)</sup>에서는 一種 特有的 局限된 浮腫이 돌연히 發生하여 甚한 搔痒을 가져오며 또 突然消



散하여 조금도 痕跡을 남기지 않는것이 特徵이라 하였다.

巢<sup>31)</sup>에서는 寒多則色赤, 風多則色白, 甚者痒痛 搔之則成瘡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丘疹의 종류에 대한 說明으로 襄<sup>3)</sup>, 趙<sup>23)</sup>, 許<sup>19)</sup>, 孫<sup>29)</sup>, 王<sup>32)</sup>에서도 同一한 丘疹의 설명이 보이며 여기에서 赤疹은 得熱則劇, 得冷則減한다고 하였고, 白疹은 得陰雨則甚 得晴暄則消한다고 하였다.

크기에 對한 설명으로는 大小不等의 隆起가 나온다고 하였는데, 이는 簡明中醫辭典<sup>11)</sup>, 奏<sup>12)</sup>, 中醫名詞術語詞典<sup>13)</sup>, 楊<sup>15)</sup>, 中醫外科學<sup>18)</sup>, 漢醫學臨床病理<sup>17)</sup>, 中醫臨床手冊<sup>20)</sup>, 顧<sup>21)</sup>, 張<sup>22)</sup>, 吳<sup>27)</sup>에서도 설명하고 있다.

趙<sup>23)</sup>, 漢醫學臨床病理<sup>17)</sup>에서는 癩疹의 형태에 對하여 圓形 或 不規則形이 있다고 하였으며, 中醫外科學<sup>18)</sup>에서는 環狀, 地圖狀等 各種形狀이 있다고 하였으며 襄<sup>3)</sup>에서는 圓形, 橢圓形 또는 불규칙한 형태가 있다고 하였으며, 朴<sup>34)</sup>에서는 地圖狀, 蛇行狀이 있다고 하였다.

發病部位에 對해서는 奏<sup>12)</sup>에 滿布全身, 發內, 耳內, 手足心이라 하였고, 朱<sup>14)</sup>에서는 隱隱然在皮膚之間이라고 하였으며, 中醫外科學<sup>11)</sup>에서는 在身體何部位라 하였고, 襄<sup>3)</sup>에서는 局部로부터 全身으로 擴大 또는 처음부터 全身全面으로 일어나는 일도 많다고 하였다.

他臟器 영향에 對해서 살펴보면 楊<sup>15)</sup>에 濕熱蘊于腸胃間 可出現腹痛, 腹瀉, 熱盛者可有便秘가 된다고 하였고, 顧<sup>21)</sup>에서는 如侵犯消化道粘膜者에는 惡心, 嘔吐, 腹痛, 腹瀉等 全身症狀이 생긴다 하였고 咽喉部에 發生者는 喉頭水腫이 생겨 호흡곤란이 된다 하였고 張<sup>22)</sup>에서도 顧<sup>21)</sup>와 同一한 설명을 하고 있다.

全身症狀에 對해서는 漢醫學臨床病理<sup>17)</sup>, 常

見病中醫臨床手冊<sup>24)</sup>에 可伴有發熱, 惡寒, 胸悶氣短, 腹痛, 腹瀉, 嘔吐, 頭暈等 全身症狀이 생긴다 하였다.

예후에 對하여는 龔<sup>30)</sup>에 熱結者赤斑出 熱甚者黑斑出, 赤斑五死一生, 黑斑十死一生이라고 하였다.

## V. 結 論

以上的 文獻考察에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蕁麻疹(두드러기, Urticaria)는 韓醫學的으로는 癩疹, 痞癩, 風疹塊, 風癩, 風搔癩疹, 痞癩等の 病名과 類似함을 알 수 있었다.

2. 대부분의 原因 및 邪氣在皮膚한테 風寒相折할때 또는 人體虛한테 風邪所折할때, 그의 비릿한 飲食을 먹음으로서, 情志狀態의 停滯時, 飲食의 不節制로 말미암아 胃腸間에 實熱이 蓄積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症狀은 身體風搔而痒, 搔之隱隱而起하여 特有的 局限된 浮腫이 突然 發生하여 甚한 搔痒感을 느끼게 되며, 또 突然 消散하여 조금 痕迹을 남기지 않는다고 하였다. 크기에서는 적게는 麻疹에서 크게는 大豆까지 있으며, 색깔도 赤疹과 白疹으로 나누고 發生部位는 全身이며, 形態는 圓形, 地圖狀等이며 他臟器에 影響을 미쳐서 惡心, 嘔吐, 腹痛, 呼吸困難等이 發生한다.

## VI. 參 考 文 獻

1. 월간 임상약학: 임상약학(The journal of clinical pharmacy) No.7, Voi.10,

- 서울, 월간임상약학사, cp 도해, 1990.
2. 柳志允: 外科·皮膚科의 辨證論治, 부천, 書苑堂, pp.206-208, 1988.
  3. 裴元植: 漢方臨床學, 서울, 南山堂, pp. 576-578, 1981.
  4.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재편집 동의학 사전, 서울, 도서출판까치, p.804, 1990.
  5. 鄭憲鐸外 7人: 免疫學入門, 서울, 高文社, pp.315-539,
  6. Roitt, I. M. : Essential Immunology, Blackwell sci, London, pp.254-273, 1988.
  7. 김구자, 황애관 譯: Color Atlas of physiology (생리학), 서울, 고려의학, p. 60, 1986.
  8. Kakayuk, H. and Midsuo, M. : Ferritin selectively suppresses Delayed type hypersensitivity responses at induction or effector phase, cell. immunol. 109, pp.75-78, 1987.
  9. Kay, A.B. : Eosinophils as effector cell in immunity and hypersensitivity disorders clin, Exp. Immunol, 62:1-12, 1985.
  10. Mitsuoka, A. et al : Delayed hypersensitivity in mice induced by intravenous sensitization with sheep erythrocytes: evidence for tuberculin type delayed hypersensitivity of the reaction. Immunology 34, 363, 1978.
  11. 中醫研究院, 光州中醫學院 編: 簡明中醫辭典, 香港, 三聯書店 出版, p.830, 1979.
  12. 奏伯末: 中醫臨證備要,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17, 1981.
  13. 中醫研究院·廣東中醫學院 合編: 中醫名詞術語詞典, 香港, 商務印書館, p.329, 1975.
  14. 朱震亨: 丹溪心法附餘, 서울, 大星文化社, p.457, 1982.
  15. 楊醫亞: 中醫學問答(下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395,396, 1985.
  16. 朴光功 編: 病源辭典, 萬岳出版社, p.1093, 1975.
  17. 北京中醫學院·北京市中醫學校 編: 漢醫學臨床病理, 서울, 成補社, pp.544-546, 1983.
  18. 上海中醫學院: 中醫外科學, 香港, 商務印書館, p.105,106, 1981.
  19. 許 浚: 東醫寶鑑, 서울, 大星文化社, p. 395, 1981.
  20. 原安徽中醫學院 編: 中醫臨床手冊, 서울, 成輔社, p.240, 1983.
  21. 顧伯康: 中醫外科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288-290, 1987.
  22. 張載信: 中醫實習手冊, 安徽科學技術出版社, pp.311-313, 1988.
  23. 趙 佶: 聖濟總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330, 1982.
  24. 江蘇新醫學院第一附屬醫院: 常見病中醫臨床手冊, 北京, 衛生出版社, p.505, 1979.
  25. 蔡仁植: 漢方臨床學(辨證施治), 서울, 大星文化社, p.345,346, 1987.
  26. 楊惟傑: 黃帝內經素問譯解, 서울, 成輔社, p.479, 1980.
  27. 吳 謙: 醫宗金鑑, 서울, 大星文化社, p. 415,416, 1983.
  28. 陳無擇: 三因極一病論證方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219, 1983.
  29.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臺北, 自由出版社, p.404,405, 1976.
  30. 龔廷賢: 新刊濟世全書(下), 臺北, 新文豐

出版公司, p.151,152, 1982.

31. 巢元方：巢氏諸病源候論，臺中，昭人出版社，  
卷二 pp.18-20，
32. 王 燾：外臺秘要(上)，서울，成輔社， p.  
405,407,408, 1975.
33. 洪淳昇：洪家定診秘傳，서울，大星文化社，  
p.122, 1983.
34. 朴炳昆：漢方臨床四十年，서울，杏林書院，  
p.437, 1974.
35. 蔡炳允：漢方外科，서울，高文社， p.311,  
312,1978.